

미 중부 토네이도 사망 100명 넘을 듯

8개주에 50개 토네이도 강타 “켄터키주에서만 최소 80명 사망” “지금까지 한인 피해는 없어”

미국 켄터키주를 비롯해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수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토네이도 발생 사흘째인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CNN, AF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94명에 달한다. 피해가 집중된 켄터키주에서만 8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속속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사망자 숫자가 최소 100명을 넘어설 것이라면서도, 마지막까지 구조와 복구에 매진하겠다고 하며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켄터키 메이필드 양초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노동자 가운데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장에서선 당시 110여명이 근무 중이었고 40명 가량만이 구조된 상태다. 아마존 시설이 위치한 일

리노이주에서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테네시에서도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칸소와 미주리에서도 각각 2명이 숨졌다고 AP는 보도했다.

CNN은 주말 사이 켄터키를 비롯해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하이오, 테네시 등 8개주에서 최소한 50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기상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앤디 베서 켄터키 주지사는 NBC에 출연, “80명 넘게 사망자가 발생했고,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서 주지사는 CNN에선 “기도하고 있지만, 추가 구조자가 나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며 “켄터키 역사상 최악의 가장 파괴적인 토네이도다. 이런 피해를 경험하지 못했고,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나 워낙 피해규모가 막대해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은 물론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켄터키주의 경우 피해가 집중된 메이필드를 비롯해 몇몇 마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초토화됐

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메이필드 양초공장의 경우 건물 지붕이 있던 곳까지 강철과 차량이 쌓여있어 건물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 됐고, 스쿨버스와 대형 차들도 뒤집어진 채 건물 잔해들과 뒤섞여 곳곳에 나뒹구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도됐다.

베서 주지사는 “아버지의 고향인 팩스톤의 경우 마을의 절반 정도가 완전히 무너졌다. 설명하기조차 어렵다”며 “보통 (구조대원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안부를 묻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문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현재까지 켄터키에서만 최소한 5만6000 가구가 정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네시에서도 7만 명 이상이 정전 상태에 놓였다. 켄터키주의 경우 한국 교민이 3000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한나 켄터키주 한인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한인 피해는 없다”며 “피해가 집중된 인구 1만 명의 소도시 메이필드 지역에는 교민이 없고, 인접한 테네시주 경계 지역에 교민들이 살고 있는데 파악된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토네이도 피해지역인 미국 켄터키주 메이필드의 한 파괴된 교회 주차장에서 12일(현지시간) 이 지역 교회 3곳의 신자들이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 민주정상회의 초청해놓고 정작 대만 대표 발언 영상은 삭제

다른 색깔로 표시한 지도에 당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110여개국을 초청해 회상으로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대만 장관이 등장하는 영상이 삭제됐으며, 이는 대만과 중국을 다른 색깔로 구별해 표시한 지도 탓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날 대만 대표 탕핑(唐鳳, 영어명 오드리 탕) 디지털 정부위원(장관급 국무위원)이 발표할 때 화면 속에 등장한

슬라이드 자료에는 중국을 빨간색, 대만을 녹색으로 표시한 지도가 등장했다. 소식통들은 해당 지도가 등장하자 미국 관리들이 난감해 했고, 백악관의 지시로 몇분 후 영상의 영상이 삭제되고 이후 토론 화면에서는 그의 음성만 제공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토론 도중 탕 위원에 대한 영상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스크린샷으로만 화면에 남았다. 이후 회의 화면에는 “패널 참석자의 어떠한 의견도 개인적인 견해이며,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고지가 올라왔다.

소식통들은 백악관이 미국 주최 회의에서 대만과 중국을 구분하는 지도의 등장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면에 해당 지도가 등장하자 미국 관리들은 즉각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교환했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만을 별개의 나라로 보여주는 해당 지도의 등장에 국무부에 회를 냈다고 밝혔다. 또 백악관이 대만 정부에 항의했고 결국 탕 위원의 영상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난징 대학살 항의 시위 12일(현지시간) 홍콩 주재 일본 영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난징대학살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난징대학살은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12월 13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군이 국민당 정부의 수도이던 난징시에서 3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이다. /연합뉴스

G7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하면 혹독한 대가”

“중국 강압적 경제정책 우려”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강력 경고를 보내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단합을 모색했다.

G7과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군사적 공격을 가할 경우 그 대가로 엄청난 결과와 심각한 비용이 발생할 것임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G7과 EU의 외교장관들은 영국 리버풀에서 10~12일 개최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해 별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공동되고 포괄적인 대응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에 앞서 의장국인 영국의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 경제제재를 시사했다. G7과 EU의 외교장관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공격적 수사를 규탄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말했듯이 러시아가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 소통을 추구하며 투명한 군사 행위에 관한 국제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중국의 강압적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부채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려하며 대안적 투자를 논의해왔다.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홍콩, 신장,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이슈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룡들의 마지막 봄

공룡대멸종 소행성 봄에 충돌 6600만년전 화석 가시서 확인

약 6600만년 전 멕시코 유카탄반도 칩술루브에 충돌하며 공룡을 비롯해 지구상의 생물 75%를 멸종한 소행성이 봄에 떨어진 것으로 특정됐다. 지구를 1억6500만년 걸쳐 지배했던 공룡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칩술루브 소행성 충돌 시기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미국 플로리다에틀랜틱대학교(FAU)에 따르면 이 대학 지구과학과 겸임교수 로버트 드팔머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지구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대멸종을 가져온 칩술루브 소행성의 충돌 시기를 봄으로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소행성 충돌 직후인 백악기 말기와 고(古)제3기(K-Pg) 사이 지층이 가장 자세하게 드러난 노스다코타주 남서부 타니스 지역에서 발굴된 화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타니스 지역은 드팔머 교수가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소행성 충돌로 인한 대규모 쓰나미로 물이 밀려들었다가 빠지면서 많은 동식물과 소행성 분출물 등이 퇴적물과 뒤섞여 형성된 것으로 제시돼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타니스에서 발굴된 여러 화석 가시의 독특한 성장선 구조와 형태를 분석해 모두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